

## 느헤미야 12 장

###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세대의 제사장-레위인 명단, 성벽 봉헌식 (찬송 44 장)

2024-6-13, 목

#### 맥락과 의미

지금까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. 새롭게 살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.

12 장은 바벨론에서 1 차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이제 2 차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. 세대를 이어서 거룩한 백성들이 수고했음을 나타냅니다. 이어서 성벽의 봉헌식을 행했습니다.

1.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세대의 제사장, 레위인 명단(1-26 절)
2. 기쁨의 성벽 봉헌식: 기쁨의 행진(27-43 절)
3. 성전의 재정을 모음(44-47 절)

#### 1.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세대의 제사장, 레위인 명단(1-26 절)

##### 1) 1 차 귀환 때의 제사장과 레위인(1-9 절)

주전 537 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(1-7 절)과 레위인들(8-9 절)의 명단을 기록합니다.

##### 2) 대제사장 요수아와 그 아들 요아김의 후손들(10-11 절)

예수아의 아들 요아김의 후손들의 이름입니다. 요아김이 중요한 인물입니다(10, 12, 26 절)

##### 3) 대제사장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(12-26 절)

대제사장 요아김은 느헤미야와 제사장/학사 에스라의 시대에 동역했습니다(26 절). 12, 13 절에도 요아김 때에 느헤미야 족속과 에스라

족속이 있었다고 합니다. 대제사장 요아김 때의 제사장들과(12-21 절) 레위인들(22-25 절) 명단을 기록합니다.

**22-23 절:**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나온 자료에 관해 설명합니다.

**24-25 절:** 다윗이 정한 대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지기는 당번을 정해 역할을 했습니다.

이 명단은 지난 80년 전에 있었던 성전 건축으로부터 이번 성벽 건축까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합니다. 또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.

## **2. 기쁨의 성벽 봉헌식: 기쁨의 행진(27-43 절)**

**27-30 절:**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는 레위인들을 지방에서 찾아 모았습니다.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케 하였습니다.

**31-43 절:** 봉헌식은 느헤미아가 주관하였습니다. 두 행렬로 무리를 나누었습니다. 성벽 서쪽 중앙 가까이 있는 골짜기의 문(2:13, 15, 3:12)에서 출발했습니다. 에스라(37 절)가 이끄는 무리는 성벽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 느헤미야(38 절)가 이끄는 무리는 시계 바늘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.

각 무리는 인도자를 이어서 제사장, 감사 찬양하는 레위인, 백성의 지도자들이 뒤따랐습니다. 두 무리는 수문(37 절)과 감옥문(39 절) 사이에서 만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.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워하며 기뻐하였습니다.

## **3. 성전의 재정을 모음(44-47 절)**

이날에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의 거제물을 성전에 바쳐 창고에 쌓았습니다. 앞서 맹세하며 언약한 대로(10:35-39) 그대로 실천했습니다. “율법에 정한대로” 했습니다(44 절).

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헌물을 다시 제사장에게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(민 18:24-28). 옛적 솔로몬과 다윗이 정한 대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가 직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(45 절).

1 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(주전 516 년). 이를 계승하여 2 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가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를 더 잘 회복했습니다(주전 444 년).

### 민고 복종할 일

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는 우리들은 매 주일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. 성도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성벽을 쌓았습니다.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영적인 성벽을 쌓았습니다.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을 우리 삶에서 쌓게 하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.

성도들이 한꺼번에 행진하며 즐거워했습니다. 주일에 모일 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기억합니다.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함께 어깨 동무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기뻐합니다.

우리 모임의 기쁨은 앞서 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주고 예배를 세워 온 노력에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. 시대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입니다.

- |  |
|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</li><li>2. 오늘 말씀에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?</li><li>3. 오늘 말씀에서 순종할 내용은 무엇입니까?</li></ol> |
|--|